

社會的인 面 에서

이 만 갑 교수
서울 大學 校

序 論

近年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食糧難은 자못 심각한 問題로 論議되고 있다.

農業年鑑에 의하면 1966년에 있어서 國內에서 생산되는 糧穀으로 國內需要를 充當할 수 있는 程度는 93% 였는데 1971년에는 74.6%였고 1972년에는 75.6%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1966년에 52萬5千메가톤의 糧穀을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던 것이 1971년에는 288萬3千메가톤 1972년에는 321萬메가톤이라는 莫大한 外穀을 導入하였다. 따라서 米穀을 비롯하여 小麥等 糧穀을 導入하기 위해서 數億弗의 外貨를 消費해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經濟發展에 적지 않은 阻害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糧穀의 絶對的인 不足은 비단 經濟的인 面에서만 惡影響을 주는 것이 아니고 心理的인 面에서도 상당한 惡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糧穀이 不足하다는 것을 알면 그 만큼 不安感을 느끼게 될 것이고 더우기 그로 말미암아 物價波動을 일으키게 되면 零細民

들은 當장 生活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心理的인 面에서의 影響뿐만 아니라 國家安保面에서도 그것이 미치는 影響은 결코 尠評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戰爭이나 어떤 緊急한 事態가 벌어졌을 때 糧穀이 크게 不足하면 이는 실로 可憐한 事態마저 초래할 可能性이 없지 않은 것이다.

食糧難과 社會的 要因

왜 우리나라에서 食糧이 이처럼 不足한가 하는데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을 것이다 技術的인 面에서 보면 첫째로 農業用水가 開發되지 않아 天然水에 의존하는 農土가 많기 때문에 旱害라든가 그 밖의 自然의 위협을 받기 쉽다는 點 둘째로 地力을 보존하고 또는 향상시키는 技術이 發達하지 못하고 또 그를 위한 努力이 만족스럽게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는 點 셋째로 肥料 農藥등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點 넷째로 栽培를 비롯하여 農業生産을 위한 기술이 發達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 다섯째로 農業機械化가 아직 미진하다는 點등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韓國에서는 水田作을 基準으로 해서 볼때 1972 年의 平年作段當收穫量은 319kg였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442kg나 생산하고 있다. 即 韓國의 農民은 日本의 農民이 一段步에서 生産하는 쌀의 72% 程度 밖에 생산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물론 日本의 農土는 韓國의 農土와 같은 條件下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日本의 生産性이 그만큼 높다는 事實은 韓國의 農民도 努力하고 技術을 革新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或은 그 以上으로 生産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食糧難의 보다 根本的인 原因은 技術의 後進性에서 온다기 보다는 生産되는 食糧의 量보다 消費되는 量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食糧을 生産하는 사람이 減少하고 食糧生産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增加하고 있다는 事實과 밀접히 關連되어 있다. 日政時만 하더라도 韓國人의 壓倒의多數는 農業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들이 생산하는 糧穀은 주로 自家消費를 했으며 남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다 그러나 韓國의 工業化와 都市化가 進척하게 됨에 따라 農業에 종사하는 사람의 數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1962年에 農家人口는 全體人口의 57.1%였는데 1972년에는 45.4%로 줄어들었다. 10年間에 10%以上이나 減少한 것이다.

農家人口의 減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勞動力의 質이 좋은 人口層이 특히 많이 농촌을 떠난다는 것이다 筆者 自身이 1969年에 실시한 調査에 의하면 京畿道 廣州郡의 몇개 촌락에서는 15세에서 30歲未滿의 男性 288名중에서 116名 즉 約 40%의 젊은이가 自己家族들과 떨어져서 주로 都市에 나가서 살고 있었으며 특히 20세에서 25세 미만되는 男性에 있어서는 81名中 과반수가 넘는 46名이 他地方에 나가고 있었다 이처럼 젊은 壯丁이 많이 離農하기 때문에 農촌에서는 勞動力이 不足하여 農業生産에 막대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食糧不足의 또하나의 중요한 原因은 쌀을 먹는 人口가 급격히 增加하고 있다는 것이다. 解放전만 하더라도 農民들의 大部分은 自己가 만

드는 쌀을 먹을 수가 없었다. 또한 都市에 살고 있는 零細民들도 쌀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餘年에 걸친 經濟發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生活水準이 나아짐에 따라 쌀밥을 먹는 人口가 增加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쌀밥을 먹는 人口에 關한 統計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明示할 수가 없지만 오늘날 農민들의 多數는 더 먹기좋은 쌀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으며 또 먹을수 있을 만큼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있다. 이에 關連해서 또 지적해야할 것은 개의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가 消費하는 食糧의 量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쌀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 보리쌀을 먹는 사람은 줄어들게 될것이다. 그러면 보리쌀의 需要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보리쌀의 생산량도 줄게 될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와같은 간단한 圖式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 1962年에서 1972年에 이르는 10年間에 있어서 麥類의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4.8%이며 같은 期間의 米穀의 年平均 生産增加率 3.0%보다 높다.

그러나 麥類의 植付面積은 100町步에서 98町步로 줄어들고 있다 다시말하면 麥類의 段當收穫高는 상당히 높고 있지만 麥類를 生産하려는 農民의 數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萬一 麥類가 더 消費되고 비싼 값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麥類의 收穫高는 상당히 더 많이 증가 됐을 것이 분명하다.

食糧難의 또 하나의 社會的 原因은 農民으로 하여금 農業生産의 의욕을 느낄정도의 積積한 動機附與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解放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糧穀의 價格은 다른 物價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統제되고 있었다. 都市의 俸給生活者의 낮은 俸給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生活必需品인 糧穀을 낮게 묶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不足한 糧穀을 國內에서의 糧穀增産으로 充當하는 方途를 취하는 努力보다도 剩餘農産物의 導入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傾向이 강하였다.

그리고 지난 10餘年의 經濟發展을 達成하는데

있어서도 工業部門에 과도히 치중하고 農業部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努力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工業의 發展은 農業의 희생하에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農業은 중시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農業의 發展이 꺾 더디지 않을 수 없었다.

展 望

이러한 食糧難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政策이 취해졌다.

우선 家族計劃의 실시를 고취함으로써 人口의 壓迫을 감소시키려는 努力이 10餘年間に 걸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또 그로 인하여 人口의 自然增加率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男兒選好의 觀念이 유난히 강한 韓國社會에서 더 人口增加를 억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政府는 農業生産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량種子의 개발과 보급 統一米栽培의 積極勸奨 病虫害의 豫防조치 肥料의 効果의使用 地力增進 水資源開發, 農業機械化의 촉진등을 위한 갖가지 技術革新과 普及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高米價政策을 써서 農民의 米穀生産意慾을 높일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麥類價格例示制를 실시하고 1972년에는 麥類의 收買價를 30% 引上토록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政府는 混粉食을 獎勵하여 水·土 兩日로 粉食日로 定하고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는 同時에 各處에 粉食센터를 설치하여 싸고 맛있는 粉食을 제공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1971년에는 100萬메가톤의 外米를 導入하던것이 1972년에는 半以下로 줄여서 47萬메가톤만 도입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不拘하고 特別한 技術的인 革新이 없는 한 食糧難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 첫째의 理由는 韓國人이 쌀을 主食으로 하

는 食生活의 嗜好를 조속히 바꿀수는 없을 것인데 經濟發展에 의해서 사람들의 生活水準이 향상됨에 따라 쌀밥을 먹는 사람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經濟發展이 더 되면 아마도 쌀밥보다는 肉類나 高級蔬菜 또는 牛乳와 鷄卵등을 먹는 사람의 數가 늘어 날 것이며 쌀에 의존하는 度가 相對的으로 감소되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런 時期가 오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萬一 쌀보다도 싼값으로 쌀에 못지않게 맛있고 營養價가 높은 食品이 마련되고 그에 對한 嗜好를 증진하게 하는 方途가 설 수 있다면 食糧難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希望을 걸 수 있는것은 統一米를 비롯하여 優糧種子를 더욱 技術的으로 개발하여 綠色革命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아직 綠色革命을 더욱 效果있게 추진할 여지는 클 것이다. 統一米는 栽培하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은듯 하지만 正品種을 改良하는 동시에 栽培技術을 向上시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요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結局 1人當 糧穀生産力과 段當收穫高를 높이도록 多面的인 接近을 시도 하는것이 가장긴요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技術增進에 따라서는 더 耕作可能地를 확충할 가능성은 아직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크게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現在의 可耕地를 改良하고 地力을 向上시켜서 더 많은 收穫高를 올리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더 效果의이 아닐까 生覺된다. 그와 同時에 1人當 糧穀生産力을 높이는 것이 여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工業 發展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더욱 절실하다.

工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農村의 많은 人口는 더 많이 工業分野에 흡수될 것이며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數는 더 감소되지 않을수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1人當 糧穀生産力이 더 크게 向上되지 않으면 食糧難은 좀처럼 解消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